

위기 때 더 빛난 박찬구의 내실 경영... 영업익 2배 깜짝실적

(금호석유화학 회장)

금호석유화학 연간 실적 발표

매출 4조8095억, 영업이익 7422억
주요 제품 수요 증가·스프레드 확대
주춤 앞둔 박회장 '표심잡기' 호재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호석유화학이 '깜짝 실적'을 내면서 박찬구 회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9일 지난해 연간 기준 매출 4조8095억 원, 영업이익 7422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당기순이익은 5827억 원이다.

이는 전년 매출 4조9615억 원, 영업이익 3654억 원에서 각각 3.1% 줄고, 103.1%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견조한 수익성을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이날 금호석화학은 공시를 통해 "주요 제품 수요 증가 및 스프레드 확대에 따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원형사진) 박찬구 금호석화학 회장

른 수익성 증가"라고 영업이익 확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각 사업 부문별로도 수요 증가 등에 의해 수익성이 개선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합성고무 사업은 총 매출의 41.6%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이다. 해당 부문에서 금호석화학은 4분기 기준 매출 5702억 원으로 전 분기(4282억 원) 대비

약 33% 확대됐다. 또한 합성수지 사업에서도 4분기 기준 매출 3310억 원을 기록하며 전 분기(2868억 원) 대비 15%가량 늘었다.

금호석화학은 지난 4분기 타이어용 범용 고무 제품의 수요가 증가했고, 스프레드의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했다는 평이다. 위생용품의 견조한 수요로 NB라텍스의 수익성도 확보했다. 또한 원재료 스타이렌노모머(SM) 변동 폭의 확대로 전 분기 대비 폴리스티렌(PS) 수익성이 감소했지만, 가전·자동차용 고부가합성수지(ABS)의 견조한 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했다.

이 같은 호실적은 내달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찬구 금호석화학 회장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근 박 회장의 조카 박철완 상무는 독자 노선을 선언하며 주주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현재 아들 박준경 상무 등을 포함해 우호지분 약 15%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주춤 앞둔 박 회장이 실적을 통해 경영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

하면서 '표심 잡기'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주총에서는 이사진 10명 가운데 5명도 교체될 예정이다. 또, 박 상무의 주주제안 안건 상정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박 상무는 지난달 27일 공시를 통해 "기존 대표 보고자(박찬구 회장)와의 지분 공동 보유와 특수 관계를 해소한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중 제1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 정지)와 관련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의 행사 기타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혀 업계에서는 이른바 '조카의 난'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금호석화학은 내달 초 이사회를 열고, 박 상무의 주주 제안을 정기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상무는 금호석화학에 사외이사, 감사 추천 및 배당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서를 발송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DMI, 수소전지사업 지상 모빌리티분야 진출

중 로봇 전문기업과 업무협약
화재진압 수소로봇 공동 개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하 DMI)이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사업영역을 빠르게 확대한다. 수소드론을 활용한 바닷길 관제 솔루션 개발에 이어 지상 모빌리티 분야에 진출을 선언한 것.

DMI는 중국 로봇 전문기업인 중신중공업카이칭인텔리전스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소방현장과 산업현장에서 화재 진압, 현장 모니터링 등 활동을 수행하는 수소로봇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중신중공업카이칭인텔리전스는 중국 중신그룹의 자회사로, 스마트 장비와 로봇을 생산한다. 자체 개발한 50여종의 특수 로봇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소방로봇 분야에서는 중국 내 점유율 70%로 업계 1위를 차지하



현재 양산 중인 중신중공업카이칭인텔리전스의 배터리형 소방로봇

고 있다.

양사는 화재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화재 진압에 활용되는 소방로봇과 일반 산업현장에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을, 수소연료전지를 기반으로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또 중국 현지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판매도

함께 수행하기로 했다. 양사는 올해 상반기 프로토타입을 공개하고 연내 제품 양산을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소드론 분야에서 독보적인 제품력을 갖춘 DMI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소연료전지의 사업영역을 지상용 모빌리티 분야로 확대하게 된다. 특히 소방용 수소로봇은 화재 상황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만큼, 개발이 완료되면 다양한 분야의 모빌리티로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이를 통해 DMI의 사업영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DMI 이두순 대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중국 소방로봇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고객 확보와 수소연료전지 활용 분야의 다각화를 통해 DMI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T, 성과급 논란 일단락... "지급방식 개선"

EVA 방식 대체 별도 기준 설계

최근 성과급 논란에 휘말린 SK텔레콤이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급 체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SK텔레콤 노동조합은 9일 오전 사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사측으로 부터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했고 조합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이에 노동조합은 이날 새벽부터 노사 긴급협상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협상 결과, SK텔레콤 노사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경제적 부가가치(EVA)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노동조합과 함께 설계하기로 했다. 또 구성원 대다수가 평균급액을 받지 못하는 지급 방식을 개선해 기준 금액 이상 지급구

성원의 비율 확대하기로 하고, 임금협상을 통해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노사합동 TF'를 구성해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지표와 지급 방식을 만들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SK텔레콤 측은 "노동조합은 투명한 성과급 제도 운영을 바라는 구성원의 의견을 회사가 적극 수용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SKT 노사는 앞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노사간 화합과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SK텔레콤 노조는 지난해 매출 18조6247억 원, 영업이익 1조349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5.0%, 21.8% 성장한 상황에서 상당수 구성원의 성과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4일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나인 기자 skkni@

SKC, 전 사업 흑자... 영업익 36.5% ↑

매출 2조7022억, 영업이익 1908억
2차전지 소재회사 변화 등 혁신 주효

SK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에도 전 사업 부문에서 흑자를 달성했다.

SKC는 9일 지난해 연간 기준 매출 2조7022억 원, 영업이익 190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당기순이익은 720억 원이다. 이는 전년 매출 2조3611억 원, 영업이익 1398억 원에서 각각 14.4%, 36.5%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도 전 사업 부문에서 흑자를 내며

성장세를 나타냈다는 평이다.

SKC는 지난해 끊임없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이뤄냈다.

1월에는 2차전지용 동박사업에 진출하며 2차전지 소재회사로 변화를 꾀했다. 2월에는 화학사업을 분사해 글로벌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BM혁신 시너지가 높지 않은 SKC코오롱PI, SK바이오랜드의 지분도 매각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SKC솔믹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반도체 관련 사업을 통합해 성장 가속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수지 기자

한화큐셀

국내 사업장 'RE100' 선언

저탄소 친환경 경제 기여

한화큐셀이 한국 재생에너지 기업 중 최초로 국내 사업장의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선언했다.

한화큐셀은 9일 RE100 선언을 통해 사업 분야에 있어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며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그린뉴딜 선도기업이자 글로벌 재생에너지 리더로서 위상을 굳히게 됐다.

/김수지 기자

LG전자, 美 KBIS서 프리미엄 빌트인 소개

(주방·욕실 전시회)

한 달간 가상 전시관 오픈

LG전자가 미국에서 빌트인 실력을 뽐낸다.

LG전자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KBIS 2021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KBIS는 미국 주방욕실협회(NKBA)가 주관하는 미국 최대 주방·욕실 전시회로,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처음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LG전자는 1달여간 가상 전시관을 열고 빌트인 제품을 소개한다.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관과 프리미엄 빌트인 제품으로 구성된 LG 스튜디오 등 다양하게 조성했다.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관에는 36인치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관.

/LG전자

가스 프로레인지와 서랍형 냉장고·와인셀러 등 신제품을 비롯해 48인치 듀얼 퓨얼 프로레인지와 컬럼형 냉장고 등 22종 제품 라인업으로 꾸몄다. '초프리미엄' 제품을 확인하고 온라인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김재용 기자 juk@